

현대 영어의 접속법*

윤우열
(중앙대학교)

Youn, Woo Yol. (2002). Subjunctive in modern English. *Language Research* 38(1), 241-25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emantic mechanism of subjunctive in contemporary English. From a guillaumian perspective, the mood system in English is created by the chronogenesis, namely spatial representation of time. In this theory of Psychomechanics, the mood is defined by the nature and the quality of viewing idea. The opposition of indicative/subjunctive corresponds to the opposition of actual/virtual. The choice of mood is generally depends on the fact of tongue like lexical, syntactical, and grammatical elements. But the intensional meaning of speaker plays more important and primordial role.

Key words: mood, subjunctive, psychomechanics, Subjunctive, psychomechanics, mood

1. 머리말

이 논문은 현대영어의 접속법(subjunctive)¹⁾을 동사체계라는 큰 틀 안에서 그 위치와 기능을 다루고, 접속법이 현대영어에서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직설법과 의미적으로 대응되는 문법적 범주로서 동사체계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분석의 수단은 불란서 언어학자 귀스타브 기욤(Gustave Guillaume)의 정신기계론(Psychomécanique/Psychomechanics)²⁾의 동사이론을

* 이 논문은 2001학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1) 흔히 우리 영문법에서는 'subjunctive'를 의미적 기준에 토대를 둔 '가상법'이라는 용어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subjunctive'의 어원이 '중속'이라는 의미를 띠고 있는 만큼 이에 충실하기 위해 우리 불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접속법이란 용어로 번역하기로 한다. 그런데, 뒷부분에서 언급하겠지만 접속법을 제어하는 '중속'의 개념은 통사적 중속보다는 의미적 중속을 말하는 것이다.
- 2) 정신기계론은 그 탄생지가 불란서이기 때문에 주로 불어를 포함한 로마어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허틀(W. Hirtle), 줄리(A. Joly) 등의 영어학자들이 영어를 대상으로 이 이론을 적용한 많은 연구가 있고, 그 이론적 바탕은 일반언어학 이론으로서 언어에 대한 또 하나의 인식론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소쉬르(F. de Saussure)의 '대립의 언어학(linguistique d'oppositions)'과 비교해 볼 때 그의 언어학은 한마디로 '시간의 언어학(linguistique du temps)' 또는 '위치의 언어학(linguistique de positions)'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이론적 독창성으로 불란서 현대 언어학사에서 주요한 한 줄기를 차지하고 있다. 정신기계론에 대해서는 윤우열(1994, pp. 216-221), 윤우열(2000, p.p. 90-93)을 참조.

바탕으로 하겠다.

이 이론의 틀에서 보면 영어의 접속법이 불어의 접속법과 상당히 유사한 통사·의미적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비불어권 우리 언어학자들에게 주로 현대 영어에 남아있는 접속법 현재를 중심으로 영어 접속법에 대한 정신기계론의 관점과 해석을 소개하는데 이 논문의 목적을 두겠다.

2. 서법 범주와 접속법

불어의 경우 접속법은 현대불어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문법범주로 간주되어 불어교육에서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접속법 반과거가 현대불어에서 이미 사라진 용법이라는 점에는 거의 이견이 없지만, 적지 않은 사용빈도를 보이며 직설법 시제와 의미적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는 접속법 현재는 여전히 현대불어문법 동사체계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접속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점은 접속법이라는 문법범주가 닫혀진 체계가 아니라 화자가 자신의 표현의지에 따라 유연성을 갖고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열려진 체계이기 때문에, 그 통사적, 의미적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문법 사실들 자체보다 접속법을 제어하는 기제(mécanisme)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뵘띠에(B. Pottier)에 의하면, 직설법과 접속법을 제어하는 기제는 양극단적 또는 불연속적 이원대립(binaire discontinu)이 아니라 연속적 이원대립(binaire continu) 관계를 갖는다.³⁾ 이 때문에 두 서법 사이에는 뵘띠에가 ‘망설임의 영역(zone d'hésitation)’이라고 부르는 화자의 자율적 선택 영역이 있는 것이다. 즉 서법의 선택이 문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표현의지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2.1. 전통문법

서법의 분류나 정의는 화자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전통문법에서는 직설법, 조건법, 명령법, 접속법 등 어미변형을 갖는 인칭서법(modes personnels)과 부정법, 분사법의 비인칭서법(modes impersonnels)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⁴⁾

그르비스(M. Grevisse)는 ‘서법은 언술에 대해 화자가 취하는 태도’라고 의미적 정의를 내리고,⁵⁾ 접속법을 제어하는 ‘화자의태도’는 기원, 후회, 양보, 가정, 우연성, 의지, 명령, 금지, 욕망, 감정, 의견, 지각, 가능성, 불가능성, 의심, 부정, 필요성, 마

3) Pottier (1987, p. 33)

4) Dubois et Lagane (1973, p. 124)

5) Grevisse (1980, pp. 708-709)

음의 움직임 등의 어휘들로 표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⁶⁾ 그렇다면 직설법과 접속법을 가르는 ‘화자의 태도’를 결정짓는 궁극적 기준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드라투르(Y. Delatour)는, ‘접속법은 판단과 해석을 표현하기 위해 종속절에서 사용되거나, 몇몇 접속사 다음에서 사용된다’고 정의하고 있다.⁷⁾ 이 정의에 의하면 접속법은 통사적으로는 ‘종속’과 ‘접속사의 존재’로, 의미적으로는 ‘판단’과 ‘해석’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접속(subjonctif/subjunctive)의 어원이 “-의 지배하에 두다(mettre sous la dépendance de -)”라는 뜻의 라틴어 ‘subjungere’에 있으니 ‘종속’이라는 통사적 특성이 접속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종속’에 고유한 법은 아니다. 종속절에서 직설법이 훨씬 많이 사용되는 것만 보더라도 종속이라는 통사적 특성이 접속법의 사용에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 못한다.

또한 ‘판단’과 ‘해석’이라는 용어도 매우 애매모호하다. 예를 들면 Je pense qu'il est beau.(나는 그가 잘 생겼다고 생각해.)라는 예문에서 동사 penser는 ‘판단’이나 ‘해석’이 아니어서 종속절에 직설법 동사형태인 est를 사용한 것일까?

전통영문법에서 서법은 ‘문장의 내용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나 필자가 가지는 일정한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형태나 그 문법형태가 지니는 기능’(Jespersen),⁸⁾ 또는 ‘문법에서 동사의 일정한 형태에 의해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진술내용에 대해 취하는 심적 태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직설법, 명령법, 가상법의 세 가지로 나눈다.⁹⁾ 그러나 명령법은 독특한 형태가 없고 동사의 원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정사의 한 용법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또한 영문법에서 가상법은 ‘동사의 일정한 형태에 의해’라는 서법의 정의와는 달리 ‘가상’의 의미가 동사 이외의 요인(예를 들면 어휘적인 성격의 부사 if, 서법조동사에 의한 가상표현 등)에 의해 표현되는 경우를 모두 포괄하는 범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설법은 일정한 진술내용을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사실서법으로 화자의 심리적 태도와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립서법(neutral mood)이라고 하기도 한다.¹⁰⁾

가상법은 진술내용을 사실로서가 아니라 화자의 주관적인 상상, 가정, 기원 등의 감정으로 표현하는 서법으로, 과거에는 동사의 굴절형을 써서 가상법을 나타낸 데 비해 현재에 와서는 서법조동사를 사용하기도 하므로 현대영문법에서 기술하고 있는 “가상법”은 접속법과 서법조동사로 표현되는 언어현상 모두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가상법의 형태가 3인칭 단수주어 현재에서 ‘s’가 붙지 않는 원형가상법과, 과거

6) 같은 책, (pp. 853-856)

7) Delatour (1991, p. 58)

8) 조성식 외 (1990, p. 752 재인용)

9) 같은 책, (1990, p. 753)

10) 같은 책, (1990, p. 753)

에 were만이 나타나므로 형태적인 면에서 서법으로서의 문법법주를 설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지만,¹¹⁾ 불어의 경우도 접속법과 직설법이 형태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으며, ‘미래지향적’인 접속법의 특성상 ‘접속법 미래’는 없다.

2.2. 정신기제론

정신기제론의 관점에서의 서법체계는 시제(temps grammatical), 시상(aspect)과 함께 동사의 형태변화에 의한 시간표상이라는 하나의 일관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 때 ‘시간’이라는 개념은 언어분석에서 흔히 다루고 있는 시제나 시상에서 얻는 개념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불어의 시간표상체계는 단차원적이 아닌 다차원적 표상체계로 기욤은 이 체계를 ‘시간표상생성’(chronogénèse)이라 이름지었다. 어원적으로 ‘시간(temps)’과 ‘생성력(force productrice)’의 합성어인 ‘시간표상생성’은 일반문법적인 사실 또는 보편적 언어현상은 아니고 인도유럽어의 특성인데,¹²⁾ 사고안에서의 공간화를 통한 시간표상의 생성을 말하며 불어의 경우 연속체인 생성축상의 3개 위치를 준명사법(mode quasi-nominal), 접속법(mode subjonctif), 직설법(mode indicatif)이 전후관계를 이루며 차지하고 있다.

전통문법의 분류와 비교해 보면 전통문법에서 서법으로 분류되었던 조건법과 명령법이 제외되고, 분사법이 직설법, 접속법과 함께 서법체계를 이룬다고 보고 있다. 기욤의 정신기제론에서 조건법(conditionnel)은 단정적 미래(futur catégorique/categorical future)인 단순미래(futur simple)에 대응하는 가정적 미래(futur hypothétique/hypothetical future)를 표현하는 직설법 시제로 본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개연성은 조건법보다는 단순미래의 경우가 더 크다.¹³⁾ 사실 조건법 동사가 의미적으로 조건의 뜻과 결합하는 경우는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형태적으로도 조건법의 어미형태는 -r-(미래)와 반과거 어미 -ais, 등으로 이루어진 과거의 시점을 기준으로한 미래시제이다. (예. il arrive-r-ait. 단순미래의 형태는 ‘현재로부터의 미래 il arrive-r-a’라는 구조를 갖고 있다)

기욤은 또한 명령법은 ‘담화의 서법(mode de discours)이기 때문에 ‘랑그의 서법(mode de langue)에 속하는 직설법, 접속법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본다.¹⁴⁾ 명

11) 같은 책, (1990, p. 753)

12) Joly et O’Kelly (1990, p.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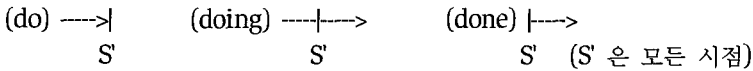
13) Quayle은 should/would가 가정적 미래를, shall/will이 단정적 미래를 담당한다고 본다.(11쪽의 도표 참조)

14) 기욤의 langue/discours 이분법을 소쉬르의 langue/parole과 비교하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언어의 음성적 차원의 실현을 의미하는 parole이란 용어를 포괄적 의미의 discours로 대체하고, langue와 discours 사이에 시간요소를 개입시켜 연속체로 보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langage = langue + discours = 1 이다. “1”은 ‘langue’와 ‘discours’가 불연속적 대립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체이고 서로 상대적 가변성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한 언어가 언어적 사실(fait de langue)이 많다면 담화적 사실(fait de discours)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직관적으로 볼 때 우

령법은 ‘청자에게 동사가 가르키는 행위를 수행하도록 말하는 방법(une manière de parler)’으로 독자적인 형태가 없고 그 어미변화를 직설법과 접속법에서 빌어올 따름이다.

분류의 기준은 ‘실재성(actualité)’인데, 이는 발화순간 현재(S)와의 시간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준명사법 -> 접속법 -> 직설법(+)의 순서를 갖는다. 준명사법은 S와 관계가 없고, 접속법은 주절의 매개로 S와 간접적 관계를 갖는다. 직설법은 S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실재성이 충만한 서법이다.

- 준명사법 : 전통문법의 부정법과 분사법(현재분사, 과거분사)을 포함하는 범주로 사행(procès)의 내적 모습만을 보여준다.



- 접속법 : 기준시점은 없고 방향성만을 갖는다. 접속법 현재는 전망적(prospectif) 방향성을 접속법 과거는 회고적(rétrospectif) 방향성을 갖는데, 이 두 방향성은 다음의 두 어휘쌍으로 설명될 수 있다.

tomorrow / the day after
yesterday / the day before

tomorrow, yesterday가 발화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각각 전망적, 회고적 시간 가치를 보여준다면, the day after, the day before는 기준시점이 없이, 달리 표현하면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시점을 기준으로 전망적, 회고적 시간가치를 보여준다. 직설법과 접속법의 관계가 바로 이렇다.

‘If I were...’ 등의 가상법 구문이 ‘이루지 못한 또는 현실성 없는 사실에 대한 가정’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은 직설법 과거 형태인 were의 ‘회고적 가치’로부터 나온 것이다.

접속법 과거 : <-----| (he) were
접속법 현재 : |-----> (he) do

사실 접속법은 절대적 기준시점이 없는 시간표현방식이기 때문에 접속법 현재/과거라는 용어는 불합리하다. 접속법 현재는 발화순간 ‘현재’와 무관하며, 접속법 과거도 기준시점이 없는 ‘과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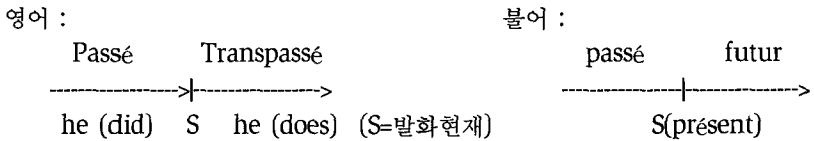
직설법 시제의 절대기준점이 발화순간 현재인 반면 접속법은 과거, 현재, 미래의

리말은 불어에 비해 담회적 성격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사소통 과정에서 담회의 차원에 속하는 상황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모든 시점을 기점으로 삼을 수 있고 그때의 시제적 가치는 주로 기점에 대한 후시성이다. 모든 시점에 대해, 달리 말하면 기점없는 미래시제라는 점에서 통사적, 혹은 의미적으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항상 종속절에서만 제시된다.¹⁵⁾ 부정법도 말하자면 기점없는 미래시제인데 그 차이는 접속법이 항상 주어인칭과 결합하는 반면 부정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아래 예문에서 보듯이 접속법은 주절의 과거, 현재, 미래 동사에 동일한 형태로 결합하고 있다.

- The rules required that all the accidents be reported.(과거)
- The rules require that all the accidents be reported.(발화순간)
- The rules will require that all the accidents be reported.(미래)
- He will ask me to go away.
- He asks me to go away.
- He asked me to go away.

- 직설법 : 발화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붙어는 3개의 시구간(현재, 과거, 미래), 영어는 2개의 시구간(과거passé, 탈과거transpassé)를 만든다.¹⁶⁾



3. 접속법의 제어

접속법을 제어하는 기제는 이 범주 명칭의 어원이 지시하듯 ‘종속’이다. 문제는 이 개념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하는 것인데, 전통문법에서 주로 기술하고 있는 통사적 종속도 중요하지만 통사적 조건이 접속법의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앞서 기술하였다. 정신기제론은 접속법을 통제하는 기제는 ‘의미적 종속’이며, 통사적으로 종속의 형태를 가질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3.1. 능시적/피시적 관념(idée regardante/regardée)[viewing/viewed idea]

접속법이 의미기제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음이 사용한 ‘능

15) 통사적 종속이 없는 “God forbid.”와 같은 접속법 문장은 의미적 종속만이 있으며 주절의 내용 (예를 들면 ‘I wish that’)이 생략된 것으로 본다. 아래 3.1. 참조

16) 미래시제 형태가 없는 영어에서 탈과거는 ‘non-passé’, 또는 ‘présent-futur’를 의미한다. 영어 시제 체계에 대한 정신기제론의 기술은 Joly et O’Kelly (1990, pp. 118-133)

시적/피시적 관념'이란 용어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이는 문법학자들이 서법을 의미적으로 정의할 때 사용하는 '판단', '해석', '태도' '심적태도'라는 용어들을 좀더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로 체계화시킨 것이다.

'능시적/피시적 관념'이란 각각 '언술내용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언술의 내용'을 말한다.

It was important / that he rest.
 I think / that she is beautiful.
 (능시적 관념) (피시적 관념)

이 두 관념의 구분은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대개의 경우 통사적 기준에 의한 주절과 종속절의 구분과 일치하지만 필요조건은 아니어서, 능시적 관념이 함축적인 경우도 있다(Dieu vous protège! God bless you.). 기음은 주절/종속절이란 용어가 통사적 사실만을 보여준다고 보고, 언어주체의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뜻에서 능시적/피시적 관념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¹⁷⁾ 어느 경우이나 피시적 관념에 사용되는 서법은 능시적 관념에 의해 결정된다.¹⁸⁾

이렇게 본다면 접속법의 어원인 '종속'은 통사적 종속과 의미적 종속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접속법이 주절의 동사로 쓰인 Dieu vous protège! God bless you.에서 처럼 반드시 통사적 종속이 접속법을 제어하는 필요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적 종속이 더 중요한 제어조건임을 알 수 있다.

영어에서 접속법을 제어하는 능시적 관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현된다. (어휘목록은 Quayle (1997. pp. 256-262), 예문은 관련 논문들과 Collins Cobuild English Dictionary (Harper Collins Publishers, 1998)에서 발췌하였으며, 형태적 특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종속절의 주어가 형태적으로 직설법과 구분이 가능한 3인칭 단수 또는 부정법 형태로 사용된 것들만을 제시한다.)

가. 주절의 동사 (appeal, ask, charge, command, demand, insist, order, permit, pray, propose, provide, recommend, request, suggest, suppose, 등..)

- She had requested that the door to her room be left open.
- Russia demanded that Unita send a delegation to the peace talks.
- He commanded that the roads be built to link castles across the land...
- The judge recommended that he serve 20 years in prison.

17) Douay et Roulland (1990, p. 218)

18) Guillaume (1991, p. 12)

나. 주절의 형용사 (advisable, appropriate, essential, fitting, imperative, important, necessary, obligatory, preferable, 등.)

- It was imperative that he act as naturally as possible.
- It was important that he rest.

다. 주절의 명사 (order, requirement, resolution, request, insistence, recommendation, 등..)

- (...) Reader's insistence that naval uniform be worn (...).
- Vietnam made an official request that the conference be postponed.
- I have been told that there was outrage at my recommendations that eleven policemen be prosecu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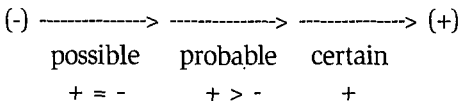
라. 아래와 같은 예문에서 능시적 관념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 (..... that) God forbid.(신이 용서하기를!)

직설법 동사가 사용된 God forbids.는 ‘신은 용서한다’라는 단순단언이다.¹⁹⁾

3.2. 잠재성/실재성(virtuel/actuel)

‘능시적 관념’을 이루는 세 가지 보편적 근본개념은 가능성, 개연성, 확실성인데, 실재성(actualité/actuality)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념적 선후관계(chronologie notionnelle)를 갖는다.²⁰⁾



(+, - 기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높음, 낮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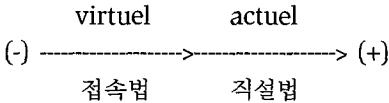
19) 3인칭 단수 현재에서 형태적 차이를 보이는 영어와는 달리 불어에서는 직설법과 접속법의 형태가 같은 경우에는 애매성을 피하기 위해 담화적 장치인 감탄부호가 필요하다. 구어에서라면 특별한 약양이 사용될 것이다.

- Dieu vous protège. (신이 너를 보호하고 있다.)
- Dieu vous protège! (신이 너를 보호하기를!)

20) Guillaume (1970, 1929, p. 32)

영어에서는 이 세 가지 보편적 개념이 선후관계를 바탕으로 체계화 되어있는데, 가능성(possible)은 서법조동사 may/can/must가, 개연성(probable)은 서법조동사 shall/will/ought가, 확실성(certain)은 기본조동사(do, be, have)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Joly et O'Kelly, 1990, pp. 308-314)

위의 도식에서 certain은 probable이 양적으로 축적된 것이므로 probable과 certain은 질적(qualité)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실재성(actuel)의 양적(quantité)인 차이만을 보여준다. 기쁨에 의하면 능시적 관념이 질적 변화 없이 양적인 변화만 할 때 법의 변화는 없다.²¹⁾ actuel/virtuel은 각각 직설법과 접속법이 담당한다.



그렇지만 접속법이 항상 위와 같은 통사·의미적 기제의 제어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의미의 생산이 랑그에 의해 주어진 통사·의미적 기제를 넘어 화자의 자율적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물론 어느 서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의미는 달라진다.

- The government is insisting that supplies be allowed into Sarajevo.
- The government is insisting that supplies are allowed into Sarajevo.(예문은 Quayle (1997)에서 재인용)

접속법이 사용된 첫째 문장에서, 종속절의 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고, insist는 demand, require의 뜻을 갖는다. 직설법이 사용된 두 번째 문장에서는, 종속절의 사건이 진실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정부에 의하면 이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동사가 직설법, 접속법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언어현상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직설법과 접속법이 불연속적이 아니라 연속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이런 언어현상은 불어에도 있다.

- Il ne pense pas que je sois malade.(그는 내가 아프지 않다고 생각한다.)
- Il ne pense pas que je suis malade.(나는 아프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4. 접속법의 형태적 특성

접속법의 위치와 역할이 축소 평가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직설법과 형태적으로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접속법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경우는 다음 예문에

21) Guillaume (1971, p. 191)

서와 같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이다.

- Together, with friends and allies, we will work to shape change, lest it engulf us. (President Clinton, Inaugural Address, 20/01/93, Quayle (1997)에서 재인용)

Joly et O'Kelly에 의하면,²²⁾ 이 예문에서 3인칭 단수주어 현재의 표지인 '-s'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접속법이 본래 잠재성을 나타내는 서법이기 때문에 '담화현재에서의 부재 인칭(3인칭) 기호'인 '-s'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3인칭은 발화시공간에 부재하는 인칭이다. 결국 접속법 현재의 형태는 부정법과 같다.

- She suggested they take a bus. (Joly et O'Kelly (1990)에서 재인용)
- Decency required that I go to see him. (Jespersen, Quayle (1997)에서 재인용)
- I'm not asking that it be easy. I'm only asking that it be possible. (Hitchcock, Quayle (1997)에서 재인용)

영어 접속법의 또 하나의 형태·통사적인 특징은 아래와 같은 부정문에서 조동사 do 를 생략하고 부정어 not 을 동사 앞에 위치시키는 것이다.(예문은 Joly et O'Kelly (1990)에서 재인용)

- I suggested that we not have any agreement. (접속법)
- I suggested that we didn't have any agreement. (직설법)

이 두 예문의 종속절의 서법도 잠재/실재 구분에 의한 서법기제에 근거를 두고 선택된 것인데 그에 따라 주절 동사의 의미가 달라진다. 접속법이 사용된 예문의 suggest는 'propose'의 의미를 갖고, 직설법이 사용된 예문의 suggest는 'hint'의 의미를 갖는다.

5. 접속법과 서법조동사

접속법 문장은 흔히 should, would 등의 서법조동사가 생략된 것이라고 학교 문법에서는 기술하고 있다.

22) Joly et O'Kelly (1990, pp. 128-129)

- I suggested that he take the exam earlier.
- I suggested that he should take the exam earlier.

서법조동사의 이러한 용법은 영국영어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접속법과 서법조동사가 표현하는 '가정'(hypothèse)의 정도는 분명히 말맛의 차이가 있다.

퀘일(N. Quayle)은 접속법이 가능성(possible)을, 서법조동사는 개연성(probable)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다.²³⁾

possible / probable // certain
 (+) <----- hypothèse -----> (-) //

subjunctive / should shall // indicative
 would will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접속법과 서법조동사는 연속적 관계를 갖기 때문에 두 용법을 가르는 객관적인 위치는 없다. 이 때문에 화자의 주관적 의지에 의해 서로 대치가 가능하다.

불어는 직설법만 보더라도 단순형에서 5개의 시제(현재, 반과거, 단순과거, 단순미래, 조건법)가 있는 반면에 영어는 2개(현재, 과거) 뿐이다. 영어 시제체계의 이런 단순성때문에 서법조동사에 의존하게 된 것 같다. 대표적인 것이 서법조동사 will/would. shall/should인데 will/shall은 불어의 단순미래에, would/should는 조건법에 대응하는 시제로 볼 수 있다.

6. 맺 음

접속법은 서법조동사와 함께 '가정'이라는 보편적 개념의 표현을 맡고 있다. 현대영어에서는 접속법이 문법범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용법도 제한적이고 서법조동사로 대체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영어에서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 문법범주로서의 자격을 부여할만 하다고 본다.

직설법과 접속법의 사용은 능시적 관념을 이루는 세 가지 근본개념 - 가능성, 개연성, 확실성-의 전후관계에 기반을 둔 의미기제에 의해 제어되는데, 이 의미기제는 잠재성/실재성이라는 2항의 연속적 의미기제로 요약된다. 서법의 선택은 이 기제에 바탕을 둔 의미, 통사 등의 랑그적 사실(fait de langue)에 의해 일차적으로 결정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담화적 사실(fait de discours)로서의 화자의 표현의지가 개념적 전후관계의 어느 지점에서 포착되어 표상화되는가 하는 것이다.

23) Quayle (1997, p. 264)

참고 문헌

- 윤우열. (1994). 뽀띠에의 개념의미론. 현대 불란서 언어학의 방법과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 윤우열. (1996). 현대불어 접속법의 의미기제. 불어불문학연구 33. 한국불어불문학회.
- 윤우열. (2000). 수의 범주와 연속/불연속. 애산학보 24. 애산학회.
- 조성식 외. (1990). 영어학사전. 신아사.
- Bouscaren, J. et J. Chuquet. (1987). *Grammaire et Textes Anglais : Guide pour l'analyse linguistique*, Edition révisée, Paris: Ophrys.
- Cotte, P. et ali. (1993). *Les théories de la grammaire anglaise en France*, Paris: Hachette.
- Delatour, Y. et ali., (1991). *Grammaire du français*, Paris: Hachette.
- Douay, C. et D. Roulland. (1990). *Les mots de Gustave Guillaume ; vocabulaire technique de la psychomécanique du langage*,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2.
- Dubois, J. et R. Lagane. (1973). *La nouvelle grammaire du français*, Paris: Larousse.
- Grevisse, M. (1980). *Le Bon Usage*, 11e édition revue, Paris: Duculot.
- Guillaume, G. (1929, 1970). *Temps et verbe. Théorie des aspects, des modes et des temps*. Paris: H. Champion.
- Guillaume, G. (1971). Structure sémiologique et structure psychique de la langue française I, publiées par R. Valin, *Leçons de linguistique* vol.1, série A, Québec: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et Paris: Klincksieck.
- Guillaume, G. (1991). Esquisse d'une grammaire descriptive de la langue française III, suivi de Sémantèmes, morphèmes et systèmes, publiées sous la direction de R. Valin, W. Hirtle et A. Joly, *Leçons de linguistique* vol.11, séries A et B, Québec: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et Lille: Presses universitaires de Lille.
- Joly, A. et D. O'kelly. (1990). *Grammaire systématique de l'anglais* Paris: Nathan.
- Lowe, R. (1998). *Introduction à la psychomécanique du langage* (version préliminaire inédite). Fonds Gustave Guillaume à l'Université Laval, Canada
- Pottier, B. (1987). *Théorie et analyse en linguistique* Paris: Hachette
- Quayle, N. (1997). Le subjonctif en anglais contemporain : étude psychomécanique,

in *Psychomécanique du langage : Problèmes et perspectives*, Actes du 7e Colloque International de Psychomécanique du Langage, Textes publiés sous la direction de P. de Carvalho et O. Soutet Paris: Honoré Champion.

Collins Cobuild English Dictionary (1998). Harper Collins Publishers.

윤 우 열

156-75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문과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전자우편 : younwy@cau.ac.kr

접수일자 : 2001. 7. 19

수정본 접수 : 2001. 8. 30

게재결정 : 2002. 2. 22